

내 자식만 잘되길 바라는 욕심 버리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5 누구나 귀한 '부모의 자녀'

말씀 위한 기도

"엄마, 저 떨어졌어요."

딸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L씨는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았다. 딸은 재수하겠다고 했다. L씨는 그 날부터 사시 불공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딸이 이번에는 꼭 합격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공부에 시달리는 딸을 보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애처로웠다.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쯤 신나게 학교 다닐 텐데...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이 가슴을 울렸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어놓은 인연이니 정성껏 기도하시고 참선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무 일 없다고 자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내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좋은 마음 내어 주시고 잘 되길 바라신다면, 그것이 다 내 가족에게도

됩니다."

L씨는 법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신의 지난 일이 떠올랐다. 과거를 돌아보니 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자식이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 들었었다. 한 번도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지

자녀 대학 낙방의 시련 겪으며 주위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

모든 입시생 위한 기도 올리며 마음의 평안과 인정 되찾아...

못했던 것이다.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 가족이 괜찮으니 남들 이야기가 상관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 딸이 대학에 못 가게 되자 자녀들을 대학에 쉽게 보낸 사람들이 남 속을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 서로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아준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L씨는 기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단연히 "우리 딸만은 이번에 꼭 봐야 할

니다"였다. 그러나 "모든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로 바꾸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처음에는 그렇게 바꾸기가 불안했다. 다른 애들이 더 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아이들 안에 내 딸도 포함되어 있다. 부처님은 모든 아이들의 부모라는 마음을 명심했다. 무조건 부처님 마음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었다.

L씨는 그렇게 기도한 후부터 어쩐지 딸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이 함께 위하는 마음을 내면서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졌다.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말을 해주는 등 왠지 정다워졌다. 얼마 전부터는 딸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엄마가 내 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일체가 내 자녀

L씨는 오늘도 법당으로 갔다. 건강하게 공부해주는 딸을 생각하고 수없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다른 모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절을 올렸다. 가슴 속에 뜨거운 응어리가 녹는 것 같고 눈물이 흘러 나왔다.

"수없는 생을 거쳐 오는 동안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L씨처럼 '내 딸만, 내 자녀만' 잘되길 바라는 욕심에서 '모든 아이들을' 위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화합의 길이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자녀, 불자(佛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중)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월동

통도사에서 <범망경> 법문을 듣고 보살계를 수지한 그 얼마 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야하나 고민하던 저는 여러 도반들의 이야기를 참고삼아 도선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선사를 찾은 저는 무척 감격했습니다. 그곳은 청담 스님께서 주석하신 곳이었던 겁니다. 그 즈음 저는 <마음>이라는 청담 스님의 구도집을 읽으며 스님의 수행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이 저를 이끌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선사를 원찰로 저의 신상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신봉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절에 갈 때마다 일주문에서부터 부산의 도반들과 말없이 우리에게 정진을 가르치시던 큰스님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저는 석불전에서 기도드리며 발원했습니다.

경전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금강경> 3개월 배운 것이 제 경전공부의 전부였습니다. 상경한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법화경>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조그만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오전 장사만 하고 절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시작하는 법회에 참석하여 한 마디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법문을 듣는 날이 많았지만,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후 간부로 뽑혀서 <법화경>의 여러 품을 더욱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서, 제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문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인과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난 후 저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자꾸 죄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화행자로서의 행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봅니다. 이웃의 아는 분들이 가끔씩 자기네들의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분들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참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법화경> 독송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화경> 공부를 6년쯤 했을 때 제게는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불사를 돕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 저는 더 이상 사찰에서 <법화경> 공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모든 생활의 의욕을 잃고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원에서 큰스님을 뵈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멀리 뒷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큰스님 저의 큰 고통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관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큰스님을 뵈고 마음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더니" 하시면서 큰스님 구도집과 법문 테이프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감격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통 가슴을 짓누르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제 마음은 말 할 수 없는 편안함이 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 때 까지 큰스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그림: 문병성

법화경 공부 중 오해에 휘말려 공부 중단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친견 후 시련 극복

속 눈앞을 아른거리며 제 머리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다. 방금 뵈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습니

산영게시판

●**능인선원 대보살계 수계 대법회**-서울 능인선원이 6월 2일 제43회 대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능인선원은 "불자들은 반드시 보살계를 수지하여 불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대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보살계를 받았던 연변만 받으려 한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오전 10시, 오후 3시 두 차례 봉행된다. (02)577-5800

●**전축사 해피만다라 대축제**-홍천 전축사가 5월 19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제3회 홍천 해피만다라 대축제에서 각각각색의 만다라를 만나자. 인도 네팔 부탄 등의 스님들이 그린 '금강의 눈' 등 만다라 1000점이 전시된다. 6월 2일까지 계속되는 해피만다라 축제에서는 만다라 전시회를 비롯해, '노동자'를 주제로 한 사진 페스티벌도 열린다. 사진 페스티벌은 행사 기간 동안 생명이 있는 것 중 '노동자'를

사진으로 찍어 A4 크기로 인화한 뒤 6월 1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만다라 포토상을 사할 기회가 있다. (033)432-0821

●**한마음선원 간병사 교육생 모집**-인양 한마음선원이 6월 25일~7월 6일 제2기 간병사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35~60세 여성으로 6월 21~22일 선원에서 1차 선행 교육을 받은 후 본격 교육이 시작된다. 5월 30일까지 재단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031)470-3173

●**보문사 템플라이프**-서울 보문사가 매월 1·3주 일요일은 내국인, 2·4주 일요일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템플라이프를 운영한다. 6월 3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라이프는 오후 2~5시 자기 알아가 기 명상, 타인 존중하기 절, 서로 소통하기 다도 등

을 체험할 수 있다. 10일 열리는 외국인 템플라이프에서는 연등 만들기 절하기 다도 체험을 제공한다. (02)928-3797

●**탄허 대종사 선사 합양 전국위호대회**-평창 월정사가 6월 8일 오전 11시 제3회 탄허 대종사 선사 합양 전국위호대회를 개최한다. 5월 25일~6월 1일 직접 쓴 휘호를 접수하면 된다. 한암 선사 1 두 편과 탄허 선사 시 두 편 중 하나를 선택해, 한글, 한문, 문인화로 표현하면 된다. 문인화는 시를 5지 이상 힘서로 쓰는 것이 조건이다. 참가비는 2만원 참가원서는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1백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이 시상된다. (033)333-6667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동국대학교, 108프로젝트로 새로운 100년 精進합니다

2007학년도 후기 불교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 모집과목: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불교학, 선학), 문화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호스피스, 생사의례학과)
- 원서접수: 2007. 5. 21(월) ~ 31(목)
- 전형일: 2007. 6. 8(금) 17:00
- 문의: http://gsbs.dongguk.edu 02)2260-3096·8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영배 동국대학교 총장 오영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불기 2551(2007)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승 (02)734-3410